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ir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최영희**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박영애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박인전

서울대학병원 정신과학교실

조교수 신민섭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University of Suwon

Associate Professor: Choi, Young-Hee

Dept. of Child Development & Guidance, Hannam University

Professor: Park, Young-Yae

Dept. of Child Studies, Yeungnam University Hospital

Associate Professor: Park, In-Jeon

Dep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hin, Min-Sup

<Abstract>

This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ir children's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had a sample of 984 5th grade children.

The higher the levels of children's depression and anxiety were, the lower their self-esteem consisting of scholastic competence, social acceptance, athletic competence, physical appearance, behavioral conduct, and global self-worth were. The higher the levels of children's depression and anxiety were, the lower their emotional intelligence(EI) consisting of self-regulation and emotion utilization, perception of emotion, other-regulation and self-expression were. For boys, scholastic competence and social competence among children's self-esteem factors were the factors best explained by children's depression and anxiety. In addition, boy's perception of emotion was explained by their depression and anxiety. For girls, on the other hand global self-worth and social competence among self-esteem factors were the two factors best explained by their depression and anxiety. Self-regulation and emotion utilization was the EI factor best explained by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girls.

▲ 주요어(key words) :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자아존중감(self-esteem),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성차이(sex difference)

* 이 논문은 1999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
음(KRF-99-C00205).

** 주저자 : 최영희(E-mail: heechoi@mail.suwon.ac.kr)

1. 서 론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지나친 도시화, 급속한 정보화 현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변화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기여한 점도 많으나, 동시에 생활 속에서 많은 불균형을 경험하게 하여 가정의 역기능과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정신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유리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가족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부부간의 화합도가 낮으며, 가족구성원들간의 응집력이 낮고 부모의 강요만이 존재하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불안감과 우울경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가정 밖에서도 아동은 끊임없는 주변의 압력과 책임 및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오늘날 아동은 과거에 비해 급속한 사회환경적 변화의 과정 속에 놓이게 되고, 아동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처 준비를 갖추기도 전에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높은 수준의 성취를 요구하는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Elkind, 1984).

스트레스는 적절히 경험하면 생활에 활력을 주거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로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계속적인 스트레스의 압력은 정신질 환과도 관련이 있어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주변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해 주로 보이는 반응으로는 식욕감퇴, 야뇨증, 말더듬기, 근육의 경련, 틱 장애 등과 같은 신체적 반응과 불안, 신경질, 좌절, 우울, 잦은 분노, 무기력 등의 정서적 반응이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불안과 우울은 아동기에 처한 상당수의 아동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정서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아동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끊임없는 시험과 경쟁, 학업성적의 부진, 교사의 질책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우울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울은 모든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심리 상태로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이며 실패, 좌절, 실망, 상실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우울은 몇 시간,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손상시키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울은 생명을 위협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질환이 될 수도 있다(문경주, 1994).

특히 아동의 우울 증상은 비교적 최근에 임상적 관찰과 연구의 관심이 되고 있는 정서적 장애 중 하나로서 아동 우울에 대한 임상적 관찰과 이에 대한 연구가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오경자·이혜련·임양화, 1991)에 의하면, 정신과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가 외현적인 행동 문제이기보다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면적 문제가 더 많으며, 그 중 우울이 가장 심각한

정서장애라고 지적하였다. 불안 역시 정신적·정서적 문제나 정신건강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홍강의·이상우, 1984)으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존재해 온 인간 실존의 기본적 조건으로서, 인간의 정신이나 행동·신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Freud(1952)는 불안이 신경증의 중심 문제이며, 인간 이해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면서, 불안이란 개인의 생활사에 관계지어 형성되며 뚜렷한 대상이 없는 상태로, 주의가 뚜렷한 대상을 향하고 있는 공포상태와 구별되는 인간 유기체의 불쾌한 정서상태라고 규정하였다(김정택, 1978, 재인용).

이처럼 아동기의 불안과 우울 증상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가볍게 보아서는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불안감에 쌓인 아동은 건전한 자아의식을 갖지 못하여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래간에 따돌림을 받거나 고립되기 쉬우며(김중대, 1984), 임상적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표집된 아동의 27~52%가 우울을 나타내었고 정상 아동의 경우 표집된 아동의 10~23%가 가볍거나 심한 우울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Asarnow와 Carlson(1985)의 주장, 우울증은 전체 환자 중 50~85%에서 재발되고(Zis & Goodwin, 1979), 25%의 환자들이 거의 만성적인 우울 증상을 갖고 있으며(Keller, Lavori, Endicott, Coryell, & Klerman, 1983), 4~5학년의 우울한 아동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 낮은 문제해결력을 보였고(Kaslow, 1983; Seligman et al., 1984), 그들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Kazdin et al., 1985)를 참고로 할 때 아동기 불안과 우울 증상은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변인 중의 하나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바람직한 적응 및 건전한 성격 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67; Harter, 1983; Wylie, 1979). Coopersmith(1968)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존경과 수용, 얼마나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나 하는 대우의 양과 개인이 성취한 객관적 지위와 사회적 위치를 포함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 이 두 요소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의미있는 타인의 평가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그것을 자아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자아상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일상의 발달과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아동은 자신의 기본적인 능력에 대해 신뢰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자신감과 신뢰감은 자아존중감의 주요한 초석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기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Erikson, 1968; Manning, 1989), 이 시기 아동들의 자신에 대한 견해는 성격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미 형성된 자아상은 전 생애를 통한 성공과 행복, 실패와 불행이라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밑거름이 된다.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 아동변인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연구

되어 온 것이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 발달에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자아존중감에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은 남아의 자아존중감이 여아보다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Marsh(1989)는 성별에 따라 높은 점수를 지닌 영역이 다르며 남아가 우세한 영역이 여아가 우세한 영역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이라고 논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위축행동과 불안행동을 보이며(서선주, 1999)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게 되어 솔선해서 행동을 수행하기 어렵다(Ellison & Fireston, 1974)는 측면에서 볼 때 여아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이 보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못지 않게 감성적 능력인 정서지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자신의 감정 뿐 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줄 알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정서활용 능력과 같은 정서지능은 아동의 원만한 사회적 적응의 토대가 되며, 향후 보다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요소라 하겠다. Salovey와 Mayer(1996)는 자신의 내부에 감정이 발생했을 때 어떤 감정이 어떤 수준으로 왜 일어났는지를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불안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달래고 조절하는 능력,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을 적절히 분발시키는 능력, 역경을 헤쳐나가는 능력,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정서지능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서지능이 높은 남성은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외향적이며 책임감, 윤리감 등에 수용성을 보이며, 정서지능이 높은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발적인 특성을 보였다. 감정이입 기술이 높은 사람은 감성적 측면에서 보다 훌륭한 적응력을 보이고 대중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이러한 능력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다(Rosental, 1977). 아동의 경우에도 정서지능에서의 성차가 보였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정서조절과 자기정서표현 능력(권윤순, 2002), 자기감정인식능력과 타인감정관리능력(김은정, 1998)이 높았다.

이와 같이 행복과 성공적 적응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들 두 요소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즉 대인관계를 통해 설했어지는 불안감은 성격 발달 뿐 아니라 흥미, 태도, 가치관, 인간관계 및 전반적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지영, 1989)고 하는 사실과, 긍정적 정서상태와 부정적 정서상태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의 정서적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한 Pelham과 Swann(1989)의 주장, 그리고 아동후기로 가면서 아동의 우울은 점차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

나타나는 죄책감, 자기 비하,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으로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고한 김은정·오경자(1992)의 주장을 토대로 볼 때,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경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련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발달상의 특성상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들 변수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 및 불안경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나아가 우울 및 불안경향 변인군과 아동의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 변인군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관을 보이는지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2.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3.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 변인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군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4.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 변인군과 아동의 정서지능 변인군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수원, 대전, 대구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5학년 아동 11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참여아동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216명, 수원이 257명, 대전이 285명 대구가 346명이었다. 이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미완성인 경우를 제외한 984명만이 실제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크게 3가지로서, 아동의 성격특성 중 임상척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된다.

1) 아동의 성격특성 중 임상척도

아동의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상로·변창진·진위교(1969)가 엮고 중앙적성연구소에서 제작한 초등학교(고학년용) 성격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의 성격적 특징 및 인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 제작된 검사로서 총 10개 척도(특성), 2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두가지 척도군, 즉 기술척도와 임상척도로 나누어 성격을 측정·진단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검사자의 응답의 신뢰성을 간단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한 개의 타당성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척도는 7개의 성격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개인의 비교적 향상적인 성격 특성(personality traits)을 진단하고자 하는 것이고, 임상척도는 우울경향과 불안경향을 개략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2개의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임상척도의 하위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울경향; 우울증의 임상적 징후의 정도 및 농도를 뜻하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 또는 인생에 대하여 비판, 염세, 절망감, 자기무력감, 주관적 불행감, 사고와 행동의 완만, 무기력, 죽음과 자살에의 편견에 사로잡히고 항상 자기 부정적 판단의 경향을 나타낸다.

② 불안경향; 표출불안(manifest anxiety)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여러 장면, 여러 대상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각 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를 보면 Spearman-Brown 공식에 적용하여 기우절반법(Split-half method)에 의한 신뢰도 계수가 .72에서 .89이었으며, 본 연구자료의 Cronbach α 값은 .81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SPPC)을 변안한 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분석과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한 박영애(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일부 문항내용의 표현을 약간 수정하였다.

원 척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섯가지의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에 대한 자아지각과 하나의 총체적 자아가치 평가를 위한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6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자아존중감의 5가지 하위영역인 학업능력(Scholastic Competence), 운동능력(Athletic Competence), 사회적 수용도(Social Acceptance), 신체적 용모(Physical Appearance), 행동·품행(Behavioral Conduct)과 전반적 자아가치감(Global Self-Worth)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이들의 합이 아니라 별도의 개념으로서 위의 5가지 하위영역들과 상관을 지니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체계는 4점 척도로서 각 문항마다 주

어진 4개의 응답은 개인의 특징과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2개)과 부정적인 진술(2개)로 양분되어 있다. 즉 각 질문마다 원편과 오른편에 두 종류의 나에 대한 다른 설명이 나오며, 그 중에서 자기자신과 비슷한 쪽의 설명을 먼저 선택한 후, 그 내용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다시 "나는 정말 그렇다"와 "나는 약간 그렇다" 중에서 한 곳에 표시를 하면 된다.

답안의 배열 방식은 일정한 패턴이 없이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이 지면의 왼쪽과 오른쪽에 무선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긍정성이 높은 답안에서부터 "나는 정말 그렇다"에 4점, "나는 약간 그렇다"에 3점, 부정적인 답안 중 "나는 약간 그렇다"에 2점,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다"에 1점이 주어진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뢰도인 Cronbach α 값은 하위 척도별로 .61에서 .83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는 정서지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곽윤정, 1997; 문용린, 1997; 문용린·곽윤정·이강주, 1999; Salovey & Sluyter, 1997)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팀이 제작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총 80개로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자기 정서조절, 타인 정서조절, 자신의 정서인식, 타인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활용 등의 하위개념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문항들은 4명의 아동학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 및 5명의 석·박사과정 전공자들에 의해 내용타당도와 문장표현방식 등을 검토받고 수정·보완된 후 예비조사에 사용되었으며, 그 자료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63개 문항이 선정되어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정서지능 척도의 점수체계는 3점 척도로서 아동 자신이 평소에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문항내용에 대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그렇다'(3점), '가끔 그렇다'(2점), '그렇지 않다'(1점)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 자료의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 구성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4 요인구조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4개 요인에 모두 5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4개 요인의 총설명 변량이 약 28%로서 문용린 등(1999)의 연구에서 밝혀진 5개 요인 즉 정서 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등의 설명변량인 36%에 비하면 다소 적은 편이었다.

정서지능의 구성 요인은 제 1 요인이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이후는 '자기조절 및 활용'으로 약칭함)(20문항), 제 2 요인이 '정서인식'(15문항), 제 3 요인이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이후는 '타인조절 및 표현'으로 약칭함)(11문항), 그리고 제 4 요인이 '감정이입'(9문항) 요인이다. 제 1 요인인 '자기조절 및 활용' 요인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며, 아울러 부정적인 강한 감정이 생겼을 때 현재 진행중인 문제로부터 벗어나 기분을 전환하거나 새롭고 보다 중요한 문제에 더 관심

<표 1>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우울경향	-.47***	-.45***	-.47***	-.47***	-.40***	-.51***	-.33***	-.40***	-.31***
불안경향	-.42***	-.41***	-.44***	-.40***	-.39***	-.41***	-.23***	-.29***	-.26***
	신체·용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우울경향	-.38***	-.36***	-.42***	-.37***	-.36***	-.40***	-.47***	-.41***	-.52***
불안경향	-.33***	-.31***	-.38***	-.36***	-.36***	-.37***	-.42***	-.38***	-.46***

***p< .001

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내용의 문항들을 포함한다. 특히 정서활용은 사고, 추리, 문제해결, 창의적 과제를 해결할 때 정서를 적극적으로,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 2 요인인 '정서인식' 요인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전체 정서 지능의 토대가 된다. 즉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역은 정확하게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 수준과 관련된다. 제 3 요인인 '타인조절 및 표현' 요인은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고 바꾸어 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표현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 4 요인인 '감정이입' 요인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경험해 보는 것으로서 타인이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마치 자신이 느낀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69에서 .8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은 예비조사(2000년 2월)와 본 조사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2000년 5월 8일~5월 23일 까지 실시되었는데, 전국 4개 도시(서울, 수원, 대전 대구)를 대상으로 총 1113부가 배부되어 1104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충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984부의 설문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한글 SPSSWIN Program과 SAS Program(6.12 Version)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 정준상관분석 등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요인과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간에는 전반적으로 상관이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나 상관이 매우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존재하여 이들 변인간에 상당히 의미있는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불안보다 우울경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업능력은 우울 및 불안경향과 각각 -.47, -.42의 상관을 보여 아동이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학업능력 측면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수용도는 우울 및 불안경향과 각각 -.47, -.40의 상관을 보여 아동이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수용도 측면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특히 우울경향과 사회적 수용도 간의 상관에서 여아(-.51)는 남아(-.40) 보다 상관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운동능력은 우울 및 불안경향과 각각 -.33, -.23의 상관을 보여 아동이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운동능력 측면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우울경향과 운동능력간의 상관에서 남아(-.40)가 여아(-.31)에 비해 상관계수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체·용모는 우울 및 불안경향과 각각 -.38, -.33의 상관을 보여 아동이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신체·용모 측면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행동·품행은 우울 및 불안경향과 각각 -.37, -.36의 상관을 보여 아동이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행동·품행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표 2>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아동의 정서지능간의 상관관계

	자기조절 및 활용			정서인식			타인조절 및 표현			감정이입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우울경향	-.21***	-.15***	-.27***	-.24***	-.23***	-.23***	-.24***	-.18***	-.27***	-.02	.06	-.08
불안경향	-.26***	-.19***	-.34***	-.25***	-.18***	-.27***	-.25***	-.17***	-.28***	-.05	.06	-.16**

p< .01 *p< .001

그리고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우울 및 불안경향과 각각 -.47, -.42의 상관을 보여 아동이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울경향과 전반적 자아가치감간의 상관에서 여아(-.52)는 남아(-.41)보다 상관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울 및 불안경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보통 이상의 상관을 보이며 우울경향이 불안경향보다 자아존중감과 좀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우울 및 불안경향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정도에서 약간의 성차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아의 우울경향이 사회적 수용도와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보인 상관정도가 남아의 경우보다 높았으며, 남아의 경우에는 우울경향이 운동능력과 보인 상관정도가 여아보다 높았다. 그러므로 우울이 높은 여아는 남아보다 사회적 수용도와 전반적 자아가치감에서 좀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울이 높은 남아는 여아보다 운동능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정서지능간의 관계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지능 요인들과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간에는 감정이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우울이나 불안경향은 아동의 정서지능과 상관정도가 비슷하였다. 먼저, 정서지능 중 자기조절 및 활용능력은 우울 및 불안경향과 각각 -.21, -.26의 상관을 보여 아동이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자기정서 조절 및 활용능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울경향과 자기조절 및 활용능력간의 상관에서 여아(-.27)가 남아(-.15)보다 상관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경향과 자기조절 및 활용능력간의 상관에서도 역시 여아(-.34)가 남아(-.19)보다 상관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서인식 능력은 우울 및 불안경향과 각각 -.24, -.25의 상관을 보여 아동이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정서인식 능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불안경향과 정서인식 능력간의 상관에서 여아(-.27)가 남아(-.18)보다 상관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타인조절 능력은 우울 및 불안경향과 각각 -.24, -.25의 상관을 보여, 아동이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낮았다. 그리고 우울경향과 타인조절 능력간의 상관에서 여아(-.27)가 남아(-.18)보다 상관이 약간 더 높게, 불안경향과의 상관에서도 여아(-.28)가 남아(-.17)보다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나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감정이입 능력은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동의 불안경향과의 상관에서 여아(-.16)만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울과 불안경향은 정서지능과 비슷한 정도의 상관정도를 보이고 있다. 여아는 불안경향과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요인들과의 상관에서 남아보다 높은 정도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우울경향과는 자기조절 및 활용과 타인조절 및 표현의 두 하위요인들에서 남아보다 높은 상관정도를 보이고 있다.

<표 3> 우울 및 불안경향 변인군과 자아존중감 변인군의 정준상관분석

성별	정준변량합수	Canonical R	정준근	비율	고유치	F값	자유도
남	제 1 정준합수	.613	.376	.909	.602	16.320***	12
	제 2 정준합수	.239	.057	.091	.060	3.909**	5
여	제 1 정준합수	.646	.417	.974	.714	17.099***	12
	제 2 정준합수	.136	.019	.026	.019	1.207	5

p< .01 *p< .001

<표 4> 예측변수군과 평가변수군의 정준가중치 및 정준적재치

성별		제 1 정준변량함수				제 2 정준변량함수			
		W	L	L2	%ΣL2	W	L	L2	%ΣL2
남	예측변수군								
	1. 우울경향	-.802	-.992	.984	54.91	-1.646	-.124	.015	7.25
	2. 불안경향	-.227	-.899	.808	45.09	1.817	.438	.192	92.75
	전 체			1.792	100.00			.207	100.00
	평가변수군								
	1. 학업능력	.354	.744	.554	20.90	.176	-.056	.003	.40
	2. 사회적 수용도	.312	.708	.501	18.91	-.390	-.171	.029	3.88
	3. 운동능력	.309	.659	.434	16.38	.696	.526	.277	37.08
	4. 신체·용모	.156	.587	.345	13.02	.389	.301	.091	12.18
	5. 행동·품행	.222	.623	.388	14.64	-.778	-.587	.345	46.19
	6. 전반적 자아가치감	.126	.654	.428	16.15	-.088	-.043	.002	.27
	전 체			2.650	100.00			.747	100.00
여	예측변수군								
	1. 우울경향	-.901	-.998	.996	56.49				
	2. 불안경향	-.115	-.876	.767	43.51				
	전 체			1.763	100.00				
	평가변수군								
	1. 학업능력	.328	.720	.518	18.21				
	2. 사회적 수용도	.337	.761	.579	20.36				
	3. 운동능력	.159	.481	.231	8.12				
	4. 신체·용모	.031	.652	.425	14.94				
	5. 행동·품행	.081	.614	.377	13.26				
	6. 전반적 자아가치감	.429	.845	.714	25.11				
	전 체			2.844	100.00				

3.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군과 자아존중감군과의 관계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군을 예측변수군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군을 평가변수군으로 하여 정준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남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표 3 ~ 표 5 참조).

먼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 제 1 정준변량함수($p < .001$)와 제 2 정준변량함수($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여아의 경우 제 1 정준변량함수($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2개의 정준변량함수에 대해 <표 4>에서는 각각 정준가중치(canonical weight)와 정준적재치(canonical loading), 정준적재치의 자승값(L2), 각 변수의 L2값이 그 변인이 속한 변인군의 전체 L2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ΣL2을 제시하였다.

먼저 남아의 경우에서 두 정준함수 중 제 1 정준변량함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의 정준가중치에서 우울(-.992)이 군내 변량의 54.9%를 설명하고, 불안경향(-.899)은 45.1%를 설명하고 있었다. 남아의 자아존중감의 정준가중치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학업능력(.744)으로 군내 변량의 20.9%를 설명하며, 사회적 수용도(.708)는 18.9%로 설명된다.

이것은 남아에 있어서 우울 및 불안경향이 자아존중감을 매우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이며,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특히 학업능력과 사회적 수용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 2 정준변량함수는 첫 번째 도출된 정준변량함수쌍과는 독립적으로 잔여변량을 최대로 설명하는 정준변량함수이다. 이러한 제 2 정준변량함수의 정준가중치를 살펴보면, 예측변수군의 경우에는 불안경향(.438)이 군내 변량의 92.8%를 설명하고 있으며, 평가변수군의 경우에는 행동·품행(-.587)과 운동능력(.526)의 가중치가 높았으며 각각 군내변량을 92.8%, 37.1%를 설명하였다. 이 때 운동능력의 정준가중치가 양의 값을 보여 불안이 높은 것이 운동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면, 남아의 우울 및 불안경향이 학업능력과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해 주며, 이를 제외했을 경우 불안 경향이 행동·품행과 운동능력 측면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해 주는 변인이다.

다음으로 여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한 개의 제 1 정준함수에서, 예측변수군의 우울(-.998)이 군내 변량의 56.5%를 설명하고, 불안경향(-.876)은 43.5%를 설명하였다. 여아의 자아존중감의 정준가중치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전반적 자아가치감(.845)으로 군내 변량의 25.1%를, 사회적 수용도(.761)

<표 5> 예측변수군과 평가변수군의 정준중복지수

성별	변인	Canonical R	R2	중복지수	중복지수비율
남	예측변수군				
	1	.613***	.376	.337	.983
	2	.239**	.057	.006	.017
				.343	1.000
여	예측변수군				
	1	.646***	.417	.367	1.000
				.367	1.000

<표 6> 우울 및 불안경향 변인군과 정서지능 변인군의 정준상관분석

성별	정준변량함수	Canonical R	정준근	비율	고유치	F값	자유도
남	제 1 정준함수	.314	.098	.942	.109	6.062***	8
	제 2 정준함수	.081	.007	.058	.007	.954	3
여	제 1 정준함수	.375	.141	.957	.164	8.283***	8
	제 2 정준함수	.085	.007	.043	.007	.978	3

***p<.001

는 20.4%를 설명하였다. 이것은 여아에 있어서 우울 및 불안경향이 자아존중감을 매우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이며,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특히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존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독립변인군과 종속변인군간의 공유변량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정준중복지수(canonical redundancy index)를 산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 예측변수군의 제 1 정준함수 중복지수는 .337, 제 2 정준함수 중복지수는 .006으로 합계는 .343이 된다. 다시 말해 예측변수군인 남아의 우울 및 불안경향 변인군은 평가변수군인 자아존중감 변인군을 예측하는데 34.3%의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여아의 경우에는 예측변수군의 제 1 정준 함수 중복지수가 .367로서 예측변수군인 여아의 우울 및 불안경향 변인군은 평가변수군인 자아존중감 변인군을 예측하는데 36.7%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4.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군과 정서지능군과의 관계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경향군을 예측변수군으로, 아동의 정서지능군을 평가변수군으로 하여 정준상관관계 분석을 남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표 6~표 8 참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와 여아의 경우 모두 제 1 정준변량함수(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제 1 정준변량함수의 내용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먼저 남아의 경우를 보면, 우울 및 불안경향의 정준가중치에서 우울(.977)이 군내 변량의 52.3%를 설명하였고,

불안경향(.933)은 47.7%를 설명하였다. 남아의 정서지능의 정준가중치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정서인식(-.708)으로 군내 변량의 약 41%를 설명하였다. 즉, 남아에 있어서 우울 및 불안경향이 정서지능을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이며, 정서지능 중에서도 특히 정서인식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 여아의 우울 및 불안경향이 정준가중치에서 불안경향(-.992)이 군내 변량의 54.6%를 설명하였고, 우울경향(-.904)은 45.4%를 설명하였다. 여아의 정서지능의 정준가중치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자기조절 및 활용(.874)으로 군내 변량의 38.3%를 설명하였다. 즉, 여아에 있어서 불안경향과 우울경향이 정서지능을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이며, 정서지능 중에서도 특히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변수군의 제 1 정준함수 중복지수는 남아의 경우 .090, 여아의 경우 .127로서 예측변수군인 우울 및 불안경향 변인군은 평가변수군인 정서지능 변인군을 예측하는데 남아의 경우는 9%의 설명력을, 여아의 경우에는 12.7%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8> 남아의 예측변수군과 평가변수군의 정준중복지수

성별	변인	Canonical R	R2	중복지수	중복지수비율
남	예측변수군				
	1	.314***	.098	.090	1.000
				.090	1.000
여	예측변수군				
	1	.375***	.141	.127	1.000
				.127	1.000

<표 7> 예측변수군과 평가변수군의 정준가중치 및 정준적재치

성 별		제 1 정준변량함수			
		W	L	L2	%ΣL2
남	예측변수군				
	1. 우울경향	.665	.977	.955	52.33
	2. 불안경향	.386	.933	.870	47.67
	전 체			1.825	100.00
	평가변수군				
	1. 자기조절 및 활용	-.452	-.584	.341	27.88
	2. 정서인식	-.557	-.708	.501	40.96
	3. 타인조절 및 표현	-.393	-.597	.356	29.11
4. 감정이입	.687	.157	.025	2.05	
전 체			1.223	100.00	
여	예측변수군				
	1. 우울경향	-.240	-.904	.817	45.36
	2. 불안경향	-.790	-.992	.984	54.64
	전 체			1.801	100.00
	평가변수군				
	1. 자기조절 및 활용	.619	.874	.764	38.31
	2. 정서인식	.393	.708	.501	25.13
	3. 타인조절 및 표현	.316	.758	.575	28.84
4. 감정이입	-.150	.392	.154	7.72	
전 체			1.994	100.0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모든 측면, 즉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신체·용모, 행동·품행 측면의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대인관계를 통해 설명되어지는 불안감이 성격발달뿐만 아니라, 흥미, 터도, 가치관, 인간관계 및 전반적인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힌 이지영(1989)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위축행동이나 불안 행동을 보이며(서선주, 1999), 불안, 고립,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낮은 자아개념을 위축, 비행, 강박, 우울, 불안, 퇴행 등의 정서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 결과(김병임, 1992)와도 유사하다.

특히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우울경향과 사회적 수용도, 우울경향과 전반적 자아가치감간의 상관에서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여, 여아는 남아보다 우울경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가치감이 낮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아는 여아에 비

해 우울경향과 운동능력간의 상관에서 약간 더 높은 상관을 보여, 남아는 여아보다 우울경향이 높을수록 운동능력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거의 모든 측면 즉 자기 조절 및 활용, 정서인식, 타인 조절 및 표현능력이 대체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인내심을 지속시켜 타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밝힌 윤현석(199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퇴행이나 위축행동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밝힌 하승희(2000)의 연구결과와도 흐름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정서지능간의 상관이 대체로 더 높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지능 발달에 성격특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나타난 박영애 외 2인(투고중)의 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불안경향에서 남녀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자기 정서조절 및 활용능력이 떨어지며, 정서인식 및 타인 정서조절과 표현 능력 역시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감정이입의 경우, 남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에 있어서는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감정이입이 떨어짐을 알 수 있어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남아의 경우, 우울 및 불안경향이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특히 학업능력과 사회적 수용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외했을 때 불안 경향이 행동·품행 측면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특히 학업능력과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여아의 경우, 우울 및 불안경향이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특히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여아의 경우,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특히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이 남녀 공통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아존중감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남아의 경우는 학업능력 측면의 자아존중감에, 여아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울한 아동은 학업, 운동, 사회적 능력과 신체 및 품행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낮게 지각하였고 밝힌 박정희(198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남아의 경우, 우울 및 불안경향이 정서지능 중에서도 특히 정서인식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었다. 즉 남아의 경우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특히 정서인식 능력이 가장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 불안 및 우울경향이 정서지능 중에서도 특히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어 불안 및 우울경향이 높을수록 특히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이 가장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경우 특히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정서조절 및 활용능력이 높게 나타난 박영애 외 2인(투고중)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우울 및 불안 경향은 특히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아존중감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대체로 정서지능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여아는 남아보다 우울경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또한 여아는 남아에 비해 우울 및 불안경향과 정서지능간의 상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여아는 불안 및 우울경향이 높을수록 특히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아는 여아보다 우울경향이 높을수록 운동능력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

을수록 특히 학업능력과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또한 남아는 우울 및 불안경향이 높을수록 특히 정서인식능력이 낮았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아동의 우울이나 불안은 인간관계 및 정신건강상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요소가 되므로 불안과 우울성향을 보이고 있는 아동들이 가정과 학교나 또래집단 속에서 자기자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서지능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우울과 불안은 자아존중감이나 정서지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울이나 불안이 정서지능보다 자아존중감과 더 많은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한 선행연구(하승희, 2000)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가정과 학교의 심리적, 물리적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 IQ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EQ를 비롯한 비IQ적인 다른 요소에 기인한다는 사실(Golman, 1995)과 인간이 사회에서 보여주는 긍정적인 자리 매김은 비IQ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Gardner(황태호 역, 1997)의 주장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우리 교육에서 간과되어온 정의적 측면의 '인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고양 및 감성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더욱이 우울증은 가족, 대인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을 매우 손상시키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우울증의 영향을 받게 되며(Hammen, 1991) 임상적인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를 지니는 집단만이 양육기술에서 손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나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우울은 그들의 양육기술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주장(문경주, 1994), 아동의 불안은 모든 초기경험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불안을 처음 경험하는 것은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이며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와 타인과의 관계는 아동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김경희, 1965; 김정택, 1978; 박금희, 1986)는 주장을 고려해 볼 때 초기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부모의 자녀양육방식 및 태도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감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을 줄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녀의 성별을 고려한 부모의 올바른 자녀양육방식을 획득하고 부모자신의 건강한 인성형성, 적절한 감정통제 및 조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이 자아존중감과 정서지

능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재조명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측정도구의 한계, 즉 정서지능의 척도가 아직은 철저하고 완벽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제한점을 지닌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아동의 건전한 인성 발달 및 정서함양에 보다 발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접수일 : 2002년 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4월 15일

【참 고 문 헌】

곽윤정(1997). 정서지능의 발달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윤순(2002).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1965). 한국아동의 불안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임(1992). 양육태도, 자아개념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간의 분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1998). 유아의 정서지능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정·오경자(1992).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증.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3(1), 117-118.

김정택(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중대(1984). *정신위생학*. 서울: 형설출판사.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경주(1994).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용린(1997). *종합진로·진로적성검사*, 서울: 대교 출판부.

문용린·곽윤정·이강주(1999). 정서지능 연구의 성과와 전망. 서울대 교육연구소.

박금희(1986).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 화합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불안수준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애·최영희·박인전(미간행). 아동의 성격특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박정희(1989). 아동의 우울 경향성에 따른 지각된 유능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미정·김경연(2000).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1), 45-57.

서선주(1999). 아동의 역량지각과 문제행동. *아동학회지* 20(3), 97-106.

오경자·이혜린·임양화(1991).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 특성,

소아정신건강 12월 3호.

윤현석(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로·변창진·진위교(1969). *표준화 성격진단 검사*. 중앙정서연구소.

이지영(1989). 아동의 성(性)과 불안정도에 따른 자기 표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화·전경숙(1995). 연령, 성별, 사회계층적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225-244.

하승희(2000).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부적응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종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강의·이상수(1984). 불안장애 아동의 임상적 특성. *정신의학보* 8, 362-369.

황태호 역(1997). *감성지능(상)*, 서울: 비전 코리아.

Asarnow, J. R., & Carlson, G. A. (1985). The depression self-rating scale: Utility with child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91-499.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Coopersmith, S. (1968). Studies in self-esteem. *Scientific American*, 96-109.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Elkind, D. (1984). *All grown up and no place to go*. Addison-Wesley Publishing Co.

Ellison, C. W., & Firestone, I. J. (1974).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ust as a function of self-esteem, target status and target sty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655-663.

Freud, S. (1952).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New York: McGraw Hill.

Golman(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Hammen, C. L. (1991). *Depression runs in families: The social context of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New York: Springer-Verlag Inc.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esteem.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Sear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275-385) New York: Wiley.

Harter, S. C.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Kaslow, N. J. (1983). *Depression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uston.

Kazdin, A. E., Esveldt-Dawson, K., Sherick, R. B., & Colbus,

- D. (1985). Assessment of overt behavior and children depression among psychiatrically disturb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201-210.
- Keller, M. B., Labori, P.W., Endicott, J., Coryell, W., & Klerman, G. L. (1983). "Double depression": Two-year follow-up.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689-694.
- Manning, P. C. (1989). Family functioning, sibling relationships, and a child's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 Marsh, H. W. (1989). Age and sex effects in multidimensions of self-concept: Pre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417-430.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39.
- Pelham, B. W., & Swann, W. B. (1989). From self-concept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72-680.
- Rosental, R. (1977). *Advances in psychological assess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Salovey, P., & Mayer, J. D.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Sluyter, D.(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 for educator*. New York: Basic Books.
- Salovey, P., & Sluyter, D. J.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New York: Basic Books, Harp Collins Pub.
- Seligman, M. E. P., Peterson, C., Kaslow, N. S., Tanenbaum, R. L., Alloy, L. B., & Abramson, L. Y. (1984).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35-238.
- Stigler, J. W., Smith, S., & MaO, Lian-wen. (1985). The self-perceptions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259-1270.
- Wylie(1979). *The self-concept(vol. 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Zis, A. P., & Goodwin, F. K. (1979). Major affective disorder as a recurrent illness: A clinical review.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6, 835-839.